

#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노동자 권익보호 앞장

### 노동·비정규직·청소년센터 통합...채은지 의원 조례 제정 등 기여 노동존중 등 5대 비전도 선포...상담·권리구제·일터 개선 등 전담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노동자 권익보호 허브 기관인 ‘광주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노동인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광주노동권익센터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노동존중 등 5대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이날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 실현을 목표로 ▲일하는 광주시민의 노동인권 허브 ▲보이지 않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공제회 설립 ▲시민이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미래세대 안심일터 추구 등 5대 비전도 발표했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노동기본조례에 근거해 노동 관련 3개 센터(광주

노동센터·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합하고, 지난 1월 1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동지를 불었다.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지원, 산업재해신고센터 운영, 청년일터 문화개선 등 다양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전담한다.

센터는 특히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노동권익센터(062-951-1981)로 문의하면 된다.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노동정책과 노동자 권리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지금 광주노동권익센터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18일 광주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노동권익센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헌판 제막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채 의원은 노동권익센터 통합을 제안하고 센터 출범의 기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동자 권익 증진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노동권익센터는 광주시와 시의회,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출발하게 됐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향해 노동계·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뚝뚝 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도민·관광객 통신비 295억 절감

### 전년비 접속 횟수 63% 증가 관광객 편의 증진 크게 기여

지난해 전남도내 공공와이파이 접속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전남도가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회선을 확대 설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8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295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관광지,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공공장소 등에 총 4892회선의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해 주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공공와이파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접속 횟수는 6억6000만 회로에 달해 전년(4억5000만 회)보다 63% 증가했다.

또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연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33만 기가바이트로 집계됐다. 이를 이용

료 환산하면 313억원에 달한다. 도와 사군이 지불하는 연간 이윤료 18억원을 제외하면 통신비 295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트래픽통계에 따른 개인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6.5기가 바이트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 100만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보담담당관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민 편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전국 첫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도입

### 보행밀집 지역 등 20곳 우선 설치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18일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밀집 교차로 및 무단횡단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방호울타리 역할을 하는 저단형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보행자의 교차로 안전사고 감소를 목표로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 밀집 교차로 59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교차로 주변 무단횡단에 따른 보행

자 안전사고는 1127건으로, 사망자만 21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우선 사업비 8100만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20여개의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 이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이 가능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함에 따라 광고효과도 높여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민주당 광주시당, 성희룡·탄핵정국 주점 출입 의원들 징계 의결

### 시의원 1명·서구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성희룡, 탄핵 정국에 주점 출입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장 윤리심판원은 최근 광주시의원 1명과 서구의원 3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원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하고 부의장직에 나서 해당(善黨) 행위라는 지적을 받

고,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계를 받았다.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고 성희룡 발언을 한 오광록 서구의원에게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계가 내려졌다.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가 끝나고 육설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 포착된 고경애 서구의원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이 ‘언행 주 의령’을 내렸음에도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심철의 시의원에게는 서면 경고가 내

려졌다.

여업회사 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사적 사용해 논란을 빚은 임미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당구상 당원 징계는 중징계인 제명, 당원 자격정지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징계 의원들은 징계 의결 결과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대상 확대

### 안평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70세→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면 혜택을 받는 광주 고령 운전자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책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교통 안전 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가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0.01118건의 사고가 감소해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수시	정시	
계열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062)605-1114

www.kwangshin.ac.kr